



우리의,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세 가지 사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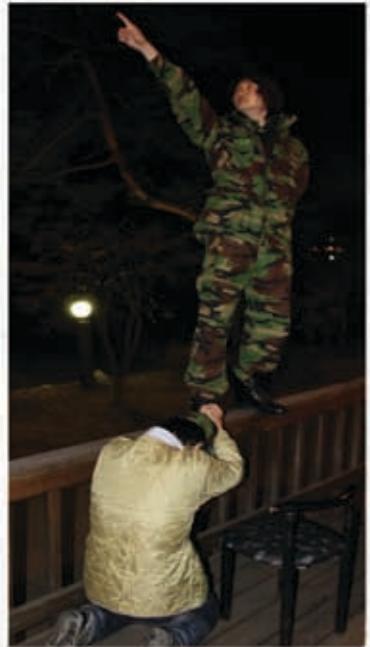
날이, 미치다

2011. 5. 26-27 [목, 금] 오후 7시 / 2011. 5. 28 [토] 오후 2시, 7시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102호

원작: 닐 사이먼, 서현철, 안톤 체홉 각색: 김진욱 기획: 김상현 연출: 김진욱

출연: 김진욱, 심소망, 오광규, 김영근, 김한솔, 서예진, 이정현, 임윤진.

초대의 글



김진욱 | 극회장
(사학과 07)

작품 설명

닐 사이먼



'같이, 미치다'는 닐 사이먼 作 '플라자 스위트'의 제3부(결혼식 손님), 서현철 作 '캐플린 지팡이를 일어버리다'의 에피소드 2(사랑에 팔하여)와 안톤 체홉 作 '꿈'을 설명역을 넣어서 묶고,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랑이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것도 혼자 미쳐서는 완전해질 수 없고 같이 미쳐야만 하는 고도의 정신적 교류 행위, 현상입니다. 3작품 모두 직, 간접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색한 극의 제목을 '같이, 미치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서현철



안톤 체홉



같아,
미치다

U. 에코의 [세상의 ~ 방법]-<서문을 쓰는 방법>을 보신 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글에 '저에게 도움을 줌 ~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루한 일인지 -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저희 공연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대신하고 대신 매 빠지는 통화 하나를 당신에게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옛날에 숭대극회란 마을에 극회장이라는 명검이 있었습니다. 그 명검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큰 바위에 꽂혀 있는데 선택될 한 사람만이 뽑아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명검을 사용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그중에서 제일 바보인 사람을 그 검의 주인으로 뽑고는 하지요. 그러면 그 왕바보는 검을 뽑아서 1년 동안 지쳐 쓰러질 때까지 허공에 대고 열심히 휘두른답니다. 자기가 왜 검을 휘두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휘휘휘휘~! 올해의 왕바보는 아직 쌩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치는 것을 모를 만큼 바보거든요. 아직은요~

연출&기획 소개



김진욱 | 연출
(사학과 07)

인간은 정말 미친 동물이다. 인간은 새욕, 배출욕, 식욕, 물욕 등의 理性적으로 측량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 하등 의미 없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권태로운 삶과 끊임없는 노동에 뒤여 살아가고, 또 살아간다. 이성은 인간에게 살아갈 절대적 가치를 절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하지만 광기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해준다.

인간이 주로 행하는 대표적인 미친 짓에는 밀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계산이 자꾸 틀리게 되며, 사랑하는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희생을 희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자신이 우스워지는 것을 즐기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상대방과 자신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랑은 삶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고로, 사랑은 미친 짓이다. 나는 뚫끼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아직 덜 미쳤나?... 올 봄에는 나도 정말 미쳐보고 싶다. (하지만 벌써 여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맨몸으로 아마존으로 뛰어드는 느낌?!

신경쓸 일은 너무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이번 기회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육체의 한계도 느껴보고 생각도 많아져보고 이 연극으로 한층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2011 봄 정기공연의 기획이라는 큰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덕분에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같이 미치자..... 제목 그대로 다같이 미쳐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숭대극회 모두가 미쳤거나 봅니다. 다들 너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숭대극회 여러분.
사랑해요. '같이 미치자' 우리가족들~



김상현 | 기획
(전기과 08)

배우소개

“난 몹시 흥분상태야”

/이정현 로이
(기계과 11)



“네, 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린, 우리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같이 미쳐볼까요?”

/이윤진 노마
(금융학과 11)

같이,
미친다



‘기대하세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김한솔 유리
(중어중문학과 11)

“사회의 의무가 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네”

/오광규 성호
(멀티미디어학과 10)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김진욱 오리 스째빠노비치 스미르노프
(건축학부 11)

“등록금 600만원에 연극만 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극과 갈껄~”

/서예진 안나
(건축학부 11)

“쉽지 않았던 경험. 고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실감났다” .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고
하는데, 내가 바라는 바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심소망 뽀뽀오바
(국제통상학과 09)

같이,
미친다



‘Winter is coming

But Seed is strong”

/김영근 설명역&보든
(기계과 11)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장민아 믿시
(산업정보시스템 09)

Staff 소개



Cast Diary

2011년 04월 11일 월요일

지금 9시 55분 5분 후면 10시 내일 숙제가 세개 지금부터 해도 두꺼는 E!!
하지만 재미있으니 참아준다.

2011년 04월 27일 수요일

새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왔다.. 하나... 이게 무슨 일인가 헹!!! 비었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또 고민이 생겼네?!?
빨리빨리좀 와라 이것들아!!!!!!

2011년 04월 27일 수요일

연출님 앞에 섰습니다. 발음이 샅습니다. 몸이 뻣뻣합니다. 대사가 제멋대로 됩니다.
'제대로 연습하겠다' 변명하고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심지어 혼자서 해봐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정체되어 버렸어요 누가 내 앞의 빨간불 좀 꺼주세요.ㅠㅠ

2011년 04월 28일 목요일

일탈의 하루였습니다. 평소 안하던 짓했습니다. 근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더라.
대체 언제 동선 제대로 짜서 자연스럽게 연기할래?! 년 연극의 시작을 알리고 끝을 고해야
하는데 정신 안차릴래?!

2011년 05월 03일 화요일

감정... 감정이입...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발 절 아줌마로 만들어주세요!
눈물을 멈추게....ㅠㅠ 절대 안 울고파요!!!
오늘은 계속 연습! 연출오빠 앞에 안보여줄... 다행인 걸까? 아님.. 아쉬운 걸까?!

2011년 05월 09일 월요일

매일 4시간씩... 한달 이상을... 무언가에 매달려 본 적이... 처음이에요.
사람들 만나기, 친구들과 놀기, 파제하기 등등 몇가지 포기할 게 좀 있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이런적이 처음이니깐요~ 이번 공연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면 뿌듯할 것
같아요. 저도 끈기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정기공연 연보

회	공연장	작품명	가격	연중
1	1921년 6/13	한중소한국 "한국불꽃 축제" "대한국 노래" 등		
2	1922년 3/2, 23	한일극 "무의리행장" "개과방간" "도백꽃" "단장우" 등		
3	1922년 3/28, 29	"조합행 쇼" 고적행 춤장화 주관		
4	1929년 1/11	"제일드로" 한영석 작	여비	한한초
5	1929년 10/28	"out town" Thoreau with 작		해태주
6	1929년 10/10	"한자원" C. 케이츠스 작		교보관
7	1929년 10/25, 29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교보관
8	1930년 5/15	"성자와 흉물" John Wellington synge 작		한영복
9	1930년 10/25, 29	"오부의 행운" Samuel Barclay 작		한영복
10	1931년 5/25, 27,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Judy gregory 작 "한국의 경마" 김준법 작 "모험의 세계" 한영복 작 "한글당화" 무악무터스 작 "교도를 가리워하는" 서무영 허재근 작		한영복
11	1931년 11/4, 5, 11	"자작영화 그림자" 신오경아이 작		자작극
12	1932년 5/25, 27	"영광" 황인노 작		한영복
13	1932년 5/21, 22, 23	"한국시화의 광경" C. 드란드작		교보관
14	1932년 10/25, 27	"한국" A. 빈데 작	교직남	자작극
15	1934년 5/25, 27	"개도" (속극장) L. 레알 작		한영복
16	1934년 6/1, 2, 3	"한국의 서정음" A. 케이 작		한영복
17	1934년 6/1, 2, 3, 13	"도스와트로스카라는 여름과 겨울" A. 케이 작	교직수	한영복
18	1934년 6/25, 27	"해대민족" 맥 프리스 작	교직수	한영복
19	1935년 4/25, 27	"한국" A. 빈데 작	교직남	자작극
20	1935년 5/15, 16, 17	"한국" A. 빈데 작	교직남	한영복
21	1935년 5/16, 18	"한국 2979" 김용덕 작	교직남	한영복
22	1935년 5/25, 26, 27	"한국" A. 빈데 작	교직남	한영복
23	1935년 6/1, 2, 3	"한국" A. 빈데 작	교직남	자작극
24	1935년 6/1, 2, 3, 13	"EQUUS" 레오나르도 작	교직남	한영복
25	1935년 10/1, 12, 13	"EQUUS" 레오나르도 작	교직남	한영복
26	1935년 5/12, 13	"카리우라" A. 케이 작	교직남	자작극
27	1936년 10/1, 2	"교도우" 맥 프리스 작	교직남	한영복
28	1936년 4/20, 21	"한국시화의 광경" F. 워킹필드 작	교직남	한영복
29	1936년 10/7, 8	"트리피" A. 보스작	교직남	한영복
30	1936년 5/25, 27, 28	"도가니" A. 빈데	교직남	한영복
31	1936년 10/11, 12, 13	"한전소" 콘 스토크만그 작	교직남	한영복
32	1936년 5/6, 16, 17	"한한금" 콘 스토크만그 작	교직남	한영복
33	1936년 11/21, 23	"산부당 부과 천부당" 초현미 과례스파 작	교직남	한영복
34	1936년 6/4, 5, 6	"EQUUS" 레오나르도 작	교직남	한영복
35	1936년 9/11, 12, 13	"한전소" C. 케이츠스 작	교직남	한영복
36	1937년 6/3, 4, 5	"한국의 범위" 새박스파 작	교직남	한영복
37	1937년 6/23, 24, 25	"오전" A. 케이 작	교직남	한영복
38	1937년 6/25, 27, 28	"한전소" A. 케이 작	교직남	한영복

채플공연&신입생 환연공연 연보

회	공연장	작품명	가격	연중
1	1965년 9월	"한민족의 고수"	교직남	한영복
2	1966년 10월	"20세기의 거 السادس"	교직남	한영복
3	1966년 10월	"로마의 남여서"	교직남	한영복
4	1966년 5월	"한국의 남여서"	교직남	한영복
5	2000년 10월	"세상에 깨끗한 모자거지 소리" 허정선 작	교직남	교직남
6	2001년 5월	"한민족 고수" 김승현 작	교직남	교직남
7	2001년 5월, 10/1, 2	"한전" A. 케이 작	교직남	교직남
8	2002년 5/28, 29, 30/1	"체육마스터즈 춤" 한다은 작	교직남	교직남
9	2003년 5/25, 27, 28	"다산연회" 김수현 작	교직남	교직남
10	2005년 5월	"한민족"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1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2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3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4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5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6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7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8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19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0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1	2006년 5월, 30, 31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2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3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4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5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6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7	2006년 5월	"한국" 김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회	공연장	작품명	가격	연중
9	1986년 3/17, 18, 19	미술대 다 캐리 E-ST.MILLAY 작	미술대	교직남
10	1987년 3/12, 13, 14	한성학 캡 - 한민 캡션	교직남	교직남
11	1987년 3/12, 13, 14	디귿은 쓰 - 쌀드드 작	교직남	교직남
12	1988년 3/24, 25, 26	망가봉자 - 미현희 작	교직남	교직남
13	1989년 2/23, 24, 25	미현 수녀를 위한 전통곡 - 죄행 작	교직남	교직남
14	1990년 3/8, 9, 10	우동을 흰자 - 보보스트로우 작	교직남	교직남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 흰수풀미터 작	교직남	교직남
16	1992년 5/20, 21/2020	꽃 막고 막 해서 - 미근설 작	교직남	교직남
17	1993년 3/11, 12, 13	해도사 - 조치 계획자 작	교직남	교직남
18	1994년 3/10, 11, 12	미현자 - 창학의 배려	교직남	교직남
19	1995년 3/9, 10, 11	봄 날 - 미경복 작	교직남	교직남
20	1995년 5/30, 31, 6/1	한여관 백도화 - 설성자 작	교직남	교직남
21	1997년 3/26, 27, 28	코코스 대표 - 디워한 작	교직남	교직남
22	1998년 5/6, 7	경춘 - 경광복 작	교직남	교직남
23	1998년 5/3, 4, 5	자랑 - 관동나래미 작	교직남	교직남
24	2000년 11/16, 17, 18	도도적 도도 - 디강오로 작	교직남	교직남
25	2002년 5/30, 31, 6/1	노부나의 밤은 - 디원재경 작	교직남	교직남
26	2003년 5/29, 30, 31	맥스드래건 - 경윤 작	교직남	교직남
27	2006년 6/4, 5, 7	한국을 살피자 - 희미스프로 작	교직남	교직남

영찬

아영이네

피자스쿨
PIZZA School
승실대점

한솥
승실대점

청해수산

청운숯불갈비
816-1001



레미안 베이커리, SBS 당구 클럽, 오페라 하우스, 흥부네, 천안문, 괴례뱅, SBS 노래방, 상투골, 이디야, IL BOSCO, 이모네, 갈메기 살, 파라다이스, 명동식당, Its rock, 이 삭, Olleh!, 엄마손 햄전골, 항아리 수제비, 브레드 하우스 밀센, 짚동가리 쌩주, 데쟈뷰, 고기 스토리, 뉴 스타, 가야성, 딥테이스트, 동아마트, 황궁쟁반짜, 주전부리



찌개대학 복대과

813-6801 2층

라면사리
무한리 칠
+ 공기밥무료



찌개대학 복대과

복대찌개...5,000	모살두루치기...5,000	주 류
보통사리...3,000	돼지고기사리...3,000	맥 주...3,000
햄 사리...2,000	오징어사리...3,000	소 주...3,000
만두사리...1,000	깻 사 리...2,000	우유수...1,000
라면사리...목한리탕	볶 음 밥...2,000	청 하...4,000
		복불자...10,000

- 저녁 떼액시(10인 이상) 10% 할인 -



도심공항타워



노두령 갈비(옛 도봉산갈비)

승실대 전철역 4번 출구

식사류

득은지 김치찌개, 볶지리, 볶매운탕
고등어 어구, 고등어 삼치
갈비 볶은지 고등어 조림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504-3
예약 TEL: 815-1065
문의 H.P: 016-418-2552

고기류

왕 양 날 칼 비
소 소 нет 돼 지 칼 살
소 윗 돼 지 칼 살
소 몇 돼 지 칼 살

노두령 갈비



서경준 원장

inactor@naver.com

010-3023-7776

연극영화과 입시전문 연기학원
156-0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01-9번지 모은빌딩 3/4층
T. 02 585 4851
www.actinglesson.co.kr

승
대
극
회



갈아,
미치다

2011년 작품

문의. 숭실대학교 안익태 기념관 지하 숭대극회실
<http://club.cyworld.com/ssuplayer>